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다문화 가정 아동 종합대책 시급하다

김왕복

“ 다문화 가정의 40%는 한국어에 서툴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다른 교과목도 따라가지 못하고 한국 아동들의 편견 속에 외톨이가 되어간다. 이러한 악순환은 학생들의 중도탈락으로 연결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심하다. 다문화 가정 취학 연령의 초중고 평균 재학률이 82%에 머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

우리는 현재 외국인 120만 명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항목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다문화 가정 우수 학생 100명 정도를 부모 출신 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 인재로 키우겠다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수가 2006년도 2만5000명에서 2008년도 5만8007명(행정안전부 통계)으로 급증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의 정책으로서는 미약한 점이 있으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도는 세계화를 외치던 김영삼 정부 때보다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1. 1995년 우리나라 최초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모 그룹 운영 고교 교장이 배정된 원어민 교사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수 거부.

#2. 2010. 12. 경기 영어마을 파주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창조 영어 캠프’가 열림. 2012년 서울에는 다문화 가정의 학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인 ‘다솜학교’ 설립 예정. 하지만 잘 키우면 전환기 우리 사회의 인재가 될 수도 있는 다문화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3. 경기도 부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인도네시아인 무남독녀 플로라(14·가명)는 2009년 친구들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놀림을 받고 학교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벌임.

다문화 가정 아동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 11.1%로 급증하고 있어 이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자녀는 대부분 학교교육에 부적응하고 있다. 부모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의 40%는 한국어에 서툴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다른 교과목도 따라가지 못하고 한국 아동들의 편견 속에 외톨이가 되어간다. 이러한 악순환은 학생들의 중도탈락으로 연결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심하다.

다문화 가정 취학 연령의 초중고 평균 재학률이 82%에 머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중도탈락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공교육을 통해 순화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큰 골칫거리로 남게 된다.

미래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책은 교육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교의 끈을 놓은 청소년은 곧 주위의 위험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교육 당국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다문화 가정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8개의 중앙 부처가 생색내기, 전시행정 차원에서 각자 추진하여 중복 투자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도지사 주관으로 가칭 ‘다문화 가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정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첫째, 우수한 이민자들이 모여들어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대안학교 설립 등을 통해 미래의 사회적 위험 요소들을 미리 방지하고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다문화 가정들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정책이 잘 작동하려면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이 이주 외국인들도 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언론 등 사회 지도층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신묘년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획기적인 배려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이공대학 총장·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구제역 청정 전남엔 ‘백신 접종’ 신중 기해야

정부가 사상 최악의 구제역에 결국 ‘백신 접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23일 경북의 안동과 예천, 경기 파주, 고양, 연천 등 5개 지역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평창, 화천, 원주 등에 이어 명품한우의 고장인 횡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조만간 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은 25일께부터 시작되며, 7016농가의 한우 13만3000여마리를 대상으로 1차 접종한 뒤 1개월 뒤 2차 접종을 할 계획이다. 그외 구제역 발생지역은 종전대로 살처분 방식으로 대처하되, 이미 예방 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농장의 가축만 매몰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은 경기도와 충청지역에 창궐했던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상습 구제역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특히 백신 사용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 문제 뿐만 아니라 접종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세계 각국이 꺼리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백신을 맞히면 최후 접종일로부터 1년간은 청정국으로 회복될 수 없다. 또 그동안 소·돼지고기 가공식품 수출이 전면 차단되고 접종 비용도 10만마리당 6억원 가량 들어 부담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에선 백신 접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백신 사용에 따라 한 순간에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지난 1934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축산지역’이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내지 말자는 얘기다.

그 전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과 일제 소독을 강화하고 시·군 간 주요도로에 방역초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달려 있다. 방역에 실패하면 ‘청정’의 명예는 물론 우리 축산업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 이젠 종지부 찍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23일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안의 골격은 별관 일부를 원형 보존하고 나머지는 건물의 골격을 강구조물로 보완해 전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별관 원형 보존 안과 일부를 헐고 문을 내자는 이른바 ‘오월의 문’안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종안은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5·18 유적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4m에 이르는 별관 가운데 30m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24m 구간은 강구조물을 덧붙여 별관 전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금남로 5·18광장에서 아시아문화광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강구조물은 건축학적으로나 미적으로 손색이 없도록 전문가에게 의뢰해 디자인할 계획이다. 역사성과 함께 전체적으로 전당 건물과 5·18과의 조화를 이루고, 광주의 명산인 무등산의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추진단의 최종안이 아시아문화전당과 5·18과의 조화를 이루는 상생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특히 별관이 문화전당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 종전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지역민이나 5월 단체 등의 수용 여부다. 여기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소모적 논란을 계속한다면 4년이나 지연된 문화전당의 2014년 완공도 물 건너간다. 지역 내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지역발전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종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이젠 별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문화전당 사업에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종교칼럼

이덕윤

이제 지나간 그 일들에 대하여 다 놓아야 하는 12월 끝자락이다.

기억해야 할 수 많은 일들을 빼곡히 적었던 1년의 수첩을 보며 많은 감회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1월을 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그 어느 달인들 소중한지 않은 달이 있으며, 그 안에 존재했던 소중한 일들과 함께했던 인연들을 생각하면 그 어디 소중하지 않은 일과 인연이 아니리요. 그래서 시작의 의미는 늘 기쁨과 희망이지만 마무리는 언제나 아쉬움과 반성, 그리고 참회로 가득하기에 반성은 또 다른 시작의 준비임에 틀림없다.

참회와 다짐의 시간 앞에서

시간의 연속에서 보면 어제가 별 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 날이 아니건만 1월의 화려한 계획과 다짐의 시간에서 12월을 보냄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를 지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또 다른 설렘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임지에서 무언가에 쫓겨 이리저리 실려서 여기까지 온 것만 같은 시린 느낌을 떨칠 수 없으나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엉켜있는 연말이다.

천지는 이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고, 자연도 자신이 가진 것을 말없이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있다.

가득 차 있으면서 텅 비어있는 우주의 질서 속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이월시킬 것인가의 겸허한 물음 앞에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적어도 나와 인연을 함께한 모든 이에게 희망을 전해준 그 한 사람이었는지 뒤돌아보고 싶다. 그리고 마음에 안정을 준 그 한 사람이었는지, 지혜와 슬기롭게 살도록 용기를 주었는지, 게으름에 익숙해지고 불의가 적당하게 느껴지고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익숙함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종교인으로서 맑음과 밝음과 훈훈함을 전해주었던 한해였는지 뒤돌아보고 싶다.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은 교당에서 혹여 더 무거운 마음을 안겨준 일들과 희망을 주고자 한말에서 도리어 상처가 될 수 있었던 일들은 없었는지, 일일이 손잡아주지 못한 나의 넉넉하지 못한 마음 가난을 참회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싶다.

원불교에서 참회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새로운 나를 창조해 가는데 그 의미가 있음을 볼 때에 참회의 생활이 없다면 즉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보다 창조적인 발전이 없을 것이며 결코 죄복의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는 법, 그러나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내일을 활짝 열어가도록 마음에 문을 열고 살아가자.

하늘의 먹구름은 영원하지 않아 다시 걷힐 수 있기에 희망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천상천하의 지혜로운 주인공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원불교 광주교당 주임교무〉

기고

김을수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20~30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복권이나 게임 등 사행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고, 이중 30% 이상이 도박중독 증세가 있다. 사행성 도박을 하는 직장인들은 평균 한 달에 2.8회 참여하며 도박 중독자의 비율은 6%에 이른다. 이중 50만 명은 신속한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

도박에 중독되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도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자본주의 특성상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게 마련이다. 경찰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서민들을 우롱하고 돈을 편취해 가는 것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것이다. 허황되게 돈을 벌려는 무모한 사행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스스로 단절하기 어려우면 정신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족 등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도박 단속에 치안력 낭비 돼서야

사행성게임 단속현장을 지휘하다 보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부류는 다양한 것 같다. 직업적으로 보면 직장인, 농업인,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도 적지 않다. 연령대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한결같이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단순히 즐기고 간다면 다행이겠으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박이 터져, 그동안에 잃었던 돈도 모두 만회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킨다면 큰 돈을 잃지 않고도 여가선용도 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승률을 조작하고 있어, 하면 할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치안력이 불법게임장을 단속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만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게임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도록 특수한 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변조를 시도하면 본 프로그램이 삭제되게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 등 게임업소 인허가 관청에서는 등록이나 허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의와 사후에도 불법게임물로 영업은 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 게임물 심의기관 및 게임업소 인허가 기관의 유기적인 공조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불법게임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단체의 관심과 홍보 등 사회적 제어장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無等鼓

외톨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한다. ‘틀어박히다’라는 일본어 ‘히키코모루’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쯤 된다.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른 용어다. 이들은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생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6개월 이상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집계한 히키코모리는 현재 23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다.

최근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대외활동을 하지만 사적인 관계는 맺지 않는 이른바 활동형 외톨이까지 등장했다. 업무 외에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이들로 차마 ‘은둔’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다.

활동형 외톨이에는 유명인들도 많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1주일 내내 ‘나홀로 점심’을 먹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일본에만 활동형 외톨이가 은둔형 외톨이의 2배인 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둔형이든, 활동형이든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처럼 사회 지도층이 외톨이가 될 경우 소통 부족으로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일반인 외톨이의 경우 고립감을 끔찍한 범죄로 폭발시키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바야흐로 송년모임 시즌이다. 개인적인 생활을 중시하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송년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연말만큼은 고기 굽고 소주도 마시며, 허리와 마음의 벨트를 푼 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고전적인 송년회도 좋을 듯 하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난립 간판 도시미관 해쳐…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거리를 걷다 보면 눈이 어지럽고 심지어 현기증마저 일어난다. 가히 도심 속 또 하나의 공해라 할 수 있는 이 어지러운 간판들이 도심의 거리, 골목, 빌딩마다 울긋불긋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이다. 또 저렇게 난립하다가 전기의 합선이나 강풍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다칠까 하는 걱정도 든다.

간판공해는 밤이 되면 네온사인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심해진다. 심지어 아무렇게 밖으로 내놓은 입간판이 길을 막는다.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크기에 비례한 간판과 종류 등 엄연한 규정이 존재한다.

예향의 도시가 불법간판의 도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겠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